“생명나눔 가치 전하는 미래 30년의 시작”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은 기념식에서 미래 30년을 자비나눔으로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일면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예하 표창을 받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자광 대종사에게 표창장을 전달받는 일면 대종사.


정현숙 마하무용단 단장은 환영사를 대신한 공연을 선보여 행사의 분위기를 띄웠다.

30 생명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⑩

생명나눔 30주년 기념식 현장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90년대부터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진력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다. 국내 장기기증·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우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사업으로 부처님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쉬지 않고 30년을 달려왔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10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주제로 개최된 기념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걸어온 30주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생명나눔과 자비나눔으로 가득 채우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사회 각계각층 불자들과 기증회원, 후원회원 등이 모여 유대를 다지고 미래 30년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역사를 담은 ‘30년사 생명의 빛, 희망의 빛’ 봉정식으로 시작됐다. 일면 대종사, 자광 대종사와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30년이 기록된 기념책자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며 자비나눔의 미래 만들기를 서원했다.

일면 대종사는 기념사를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을 맞은 소회를 전했다. 대종사는 “1994년에 틔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작은 불씨는 많은 분들의 따듯한 마음과 관심이 있었기에 장기기증·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지금의 큰 불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 **생명나눔 30년 발자취 회고, 자비나눔의 미래 30년 다짐**
> **캄보디아 등 생명나눔 사업 돌입…자비나눔 세계화 실천**
> **“작은 나눔이 큰 나눔으로, 생명나눔 가치 전파 힘쓸 것”**

본인 역시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 이식을 받아 제2의 삶을 살게 된 일면 대종사는 “‘남은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원을 가슴에 새기고 살며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에 헌신해왔다”며 “오늘 기념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30년을 더 멀고 더 넓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30돌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축하하는 인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는 치사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크나큰 사명을 묵묵하게 해온 이사장님과 25만 회원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관음보살”이라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귀하다’며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자, 사회의 모범이니 앞으로도 많은 사부대중이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축사를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화합을 근간으로 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정성을 다한 실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건강한 이들에게 보살행 실천의 길을 열어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모든 사회구성원이 나눔을 실천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사회 각계의 축하 메세지도 이어졌다.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축하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각계의 축사가 마무리되고 적극적인 후원과 복지 활동 동참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일면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예하 표창을 받고 법륜 스님과 심산 스님이 조계종 원로회의장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이어 총무원장 표창, 중앙종회의장 표창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념식의 대미는 ‘생명나눔실천본부 비전선포식’이 장식했다. 주요 내빈들이 무대 위로 올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을 마무리 짓는 손도장을 찍고 새로운 30년을 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기념식에선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 신성 씨가 각각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두 가수의 음성공양에 이어 문화공연이 열려 기념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시작으로 생명나눔 가치 전파의 범위를 세계로 넓힌다. 올해 4월 27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했고, 8월 3일에는 캄보디아 따께오 주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국제구호 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 국제지원 대상국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으로 늘리며 자비나눔의 씨앗을 널리 뿌릴 계획이다.

생명나눔 30년 史

1994년 3월 27일
‘생명공양실천본부’ 설립



생명공양실천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1995년 5월
대구 가스폭발사고 중·경상자 위한 헌혈증서 475장 기부

1998년 2월 18일
월간지 ‘삶과 생명나누기(現 행복한 빈손)’ 발간

200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선정

2005년 9월 12일
일면 스님 이사장 취임

2015년 7월 5일
의대생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발족



의대생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발대식.

2023년
후원회원 20여만 명 달성
환우 치료비 42억원 지원

2024년 8월 3일
캄보디아 따께오 주와 업무협약

2024년 10월 12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비전선포식.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